이식심장과 숙주(宿主)의 화평

(롬5:1~11)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롬] 5: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식심장과 숙주(宿主)의 화평>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심장을 이식할 때 심장이 이식되어지는 몸을 숙주(宿主)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식심장과 그 심장이 이식된 몸의 화평이라는 뜻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해나가는 가운데 화평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믿음과 화평의 관계.

예수님을 믿으므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교리를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알기 위해 다시 한 번 기억을 해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내 마음심장을 꺼내서 주는 것입니다, 즉 마음심장을 이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심장을 그냥 자기 안에 마음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마음심장을 나 말고 다른 대상에 이식을 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심장을 이식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내가 마음을 이식한 그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에 만족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심장을 이식한 뒤에 이야기 되어지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심장이식수술이 이루어진 뒤에 다른 사람의 심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거부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식수술의 실패의 주요원인이 거부반응이에요.
생존율이 1년이 80%, 5년이 60%, 10년이 40%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내 몸과 내 몸 안에 들어온 다른 사람의 심장 간의 거부반응이 없어야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는 거꾸로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다른 대상 속에 이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데로 보내진 내 심장과 그 심장이 이식되어진 대상 사이에 거부반응이 서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그 심장에 그 몸인 것처럼 아무 장애 없이 잘 돌아가는 상태가 바로 화평한 상태라는 얘깁니다, 내 심장과 내 심장을 이식한 숙주 사이에 거부반응이 없는 상태.
이렇게 믿음과 연관해서 화평이란 심장이식의 결과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데,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태안반도에 있는 해병대 캠프에서 마음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가족이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게 된 그런 경우에 심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가족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좀 덜 아파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해

외토픽에 나왔을 때 미국 사람이 그걸 읽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심장을 이식해놓은 대상이 그 캠프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내 마음심장을 돈 버는 것에 이식을 해놓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돈과 내 마음 사이에 화평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안 돼요, 경제상황이 악화됩니다, 유가가 폭등합니다, 직원이 사고를 냈습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합니다, 등등.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서 돈에 갖다가 마음심장을 이식했는데, 경제상황이 돌아가는 게 심겨진 마음에 이상신호를 계속 보내고, 자꾸 거부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돈과 내 마음 사이에 화평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우울합니다, 걱정이 쌓입니다, 불편해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마음심장을 이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심장과 숙주 사이에 거부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에요.
심장을 이식했던 그 숙주로부터 우리 마음심장을 거두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말썽이라서 걱정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심장을 자식에게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려면 내 마음으로부터 자식을 떼 내야 돼요, 자식에게 이식했던 내 마음심장을 회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다는 얘기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제의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을 때에 우리 마음심장이 하나님께 이식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교리적인 고백을 하고 끝을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아니에요, 화평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의 모습은 이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실제 하나님과 화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화평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이식되어진 내 심장과 하나님 사이에 거부반응이 없어서 실제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식 끝났다고 결혼생활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신랑과 신부가 함께 깨가 쏟아지는 신혼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돈 벌기에 심장을 이식했다고 돈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돈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1절에, '화평을 누리자!' 화평할 수 있는 관계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의 실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광채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1등 하신다는 얘기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 안에서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화평한 이유는 신랑 눈에는 신부밖에 안 보이고, 신부 눈에는 신랑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하지요,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는 하나님과 허니문 관계로 들어가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허니문 관계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일이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던 삶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사업에 심장을 이식했었습니다, 직장에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 하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건강에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내 몸 하나 잘 가꾸면 오래 살고, 이 건강을 기반으로 복이 주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 등 돌렸던 마음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자식이 좀 문제라도, 건강에 이상신호가 발견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란 것은 그것들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심장을 이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나 기쁨을 어디로부터 바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려고 하고…, 바로 이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화평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하기에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3절부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사는 실제의 예를 들기 위해서 굳이 환란이라는 말을 끄집어낼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주재이십니다.
주님 덕분에 나의 아버지로서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환란이 주어집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화평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란을 예로 든 거예요.
환란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화평관계에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환란이 왜 주어지느냐?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해주신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얘깁니다.

자, 이 얘기와 환란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환란이 주어졌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게 되면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게 돼버립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환란이 주어져서 그 환란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싫어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갑니까?
환란이 주어질 때 인내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 환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도 하나님이 알고계시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면서 그냥 그 환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내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체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연단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캐릭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내 인격적 체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꾸 환란이 주어지는 가운데 환란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환란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어렵지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인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더 이상 이 땅 위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의 체질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자꾸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계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자꾸 기다리게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체질이 바뀌다보면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환란이 주어져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괴롭지가 않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절망되지도 않고 그 환란이 부담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마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아는 체질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환란이 주어질 때, 풍랑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재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을 때때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환란에서 연단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일이 잘될 때도 그 잘되는 일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주시려 했던 것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계속 다윗을 구원해주시는 것을 기억함으로 왕권을 쥐고 왕위에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고, 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이 마음이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11절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언제나 위협요소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허락할 수가 있어?' 화평이 깨어집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주어지는 환란에 대해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화평한 삶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돈에 마음심장을 심은 사람이 돈이 잘 벌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식에게 마음심장을 이식한 사람이 자식의 일이 형통할 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으므로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이 우리 심장을 하나님께 이식한 겁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의 심장이 거부반응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이 주어질 것이고 어떤 행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등 돌려서, 돈이 안 벌린다고 불평하고, 자식이 문제라서 불평하고, 내 건강이 안 좋다고 걱정하고, 이럴 때 그 모든 것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향해 바라면서 하나님 한분이면 된다고 믿고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실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심장이 이식된 숙주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거부반응이 없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므로 내 마음심장이 하나님께 이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숙주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심장이 거부반응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마음을 고정시키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화평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